

NFT 거래에 따른 범죄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rime Analysis of NFT Transactions

송혜진*

Song, Hye-Jin

요약

매년 20여명 정도의 경찰이 자살에 이르고 있다. 업무량이 많은 타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경찰의 자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다. 경찰의 치안환경은 더욱 안 좋아지고,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잔혹한 범죄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우울증이나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부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자살유형들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자살예방모형 개발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서론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NFT 시장은 급부상하였고, 거래량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NFT의 해외 시장에서는 미술품 등 예술 분야와 유명 아티스트들의 그림과 음악 그리고 게임 캐릭터 등으로 인해 NFT의 광풍이 빠르게 전파되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면서 NFT의 가치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NFT의 기술가치는 전혀 훼손될 수 없는 것으로 오히려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강지현, 2022: 170). NFT의 최대장점은 희소성과 소유증명 그리고 무결성 등에 있는데 자기만의 가치관과 개성이 뚜렷한 요즘 세대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물론 기술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범죄도 등장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것을 악용한 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발견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안 블록체인을 이용한 NFT 기술 접목으로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고 그것으로 충분히 자금 세탁 뿐만 아니라 일반 가상화폐 사기와 폰즈 사기까지도 가능하다. 현재 NFT를 이용한 범죄사례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에서 NFT가 대중적으로 정착했을 때 그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들에 있어 범죄수법이 다양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예방과 보안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와 관련된 NFT 범죄이동 경로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2. 본론

블록체인과 결합한 NFT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그 후 가상화폐와 함께 몇 년 사이 그 가치가 상승하거나 곤두박질치면서 향후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만 높을 뿐 이렇다 할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Gang(2022) 연구에서는 NFT가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커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기존 시스템을 안고 있는 보안적 취약성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보안상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NFT 산업이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보안기술과 체계적인 보안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NFT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사업이 난립하고 이를 악용한 스캠, 피싱, 다단계와 같은 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세 조작 행위인 자전거래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가 나타나면서 자금세탁과 탈세 등 범죄자금 조성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특히 사기뿐 아니라 해킹으로 인한 범죄와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미국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022년 가상자산 범죄보고서를 통해 자전거래와 자금세탁 문제를 조망했고 25회 이상 자전거래를 실시한 사용자 262명을 포착했으며, 그 중 110명은 약 887만 달러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2022년 4분기 기준 14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불법자금과 연루된 지갑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로 유입되었으며 상당량이 사기와 관련된 지갑 주소에서 전송되었고 제재위험이 있는 출처에서 유입된 암호화폐가 약 28만

*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knupe21@hanmail.net

4000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인 NFT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법체계와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NFT 시장과 함께 발생하게 될 다양한 범죄에 대해 제시하고, 범죄경로를 분석하며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 및 입법 추진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치안 중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책 및 검거 등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NFT 관련 범죄 발생 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표준화하고 사전 예방을 제시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발생한 범죄들에 대한 수사 및 검거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NFT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그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2025년까지 성장률은 약 96조원으로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안의 취약성과 사이버상 피싱 및 하이재킹, 저작권법, 인권침해와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기 사건까지도 다양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제시하여 일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중들이 범죄에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지현(2022), “NFT의 보안상 제문제: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 송혜진(2015), “P2E내 NFT를 이용한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지, 제18권 제3호, 한국재난정보학회
- 정세희, 이창무(2022), “국내 NFT거래의 보안 위협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산업보안학회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037>